

2021 새해 새 설계

유진섭 정읍시장

“향기도시 브랜딩화...사계절 향기 넘치는 정읍 만들겠다”



“새해에는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어 마침내 이루다)의 신념을 마음에 새겨 새롭게 성장하고 약진하는 희망 정읍을 이뤄가겠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와 내수 침체, 세계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한마음이 돼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에도 정읍의 당당한 미래를 위해 더 큰 정읍을 떠받칠 주춧돌 하나하나를 놓아가는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정읍의 향기와 가치를 기반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향기공화국 정읍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련 사업을 차분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기도시 브랜딩화 전략을 마련해 사계절 향기나는 도시를 육성하고 아로마테라피센터 건립, 향기마을 조성 등 향기 콘텐츠 사업 개발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또 농업과 제조, 관광, 서비스 분야의 향기 경제 주체 육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특

아로마테라피센터·향기마을 조성

동학혁명 기념공원 준공 총력

첨단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주력

히, 인향(人香), 성향(馨香), 주향(酒香), 미향(味香), 화향(花香) 등 다섯가지 정향(井香)의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높여 정읍의 향기를 온누리에 알려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정읍시는 사계절 아름다운 내장산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용산호를 배경으로 조형물 분수를 설치하고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 곳에 국민연금공단 연수원과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원, (주)리트리트 호텔 건립을 추진, 체류형 관광에 꼭 필요한 숙박시설을 확보해 나가겠다”

2021년 주요 사업

-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발전 추진
-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관광도시 조성
- ▲유수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신산업·농업기반 확충으로 미래농업 선도
- ▲도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 ▲시민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

고 밝혔다.

사발뚝뚝 권역 정비와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동학농민혁명 탐방길과 깃발 공원을 조성한다. 국비 370억원이 투입되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준공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읍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전도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

역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첨단과학산업진흥원 설립과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산업벨트 구축,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첨단 정읍의 밝은 미래를 이끌 계획이다.

도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발전과 시민 편의를 증진시킬 방침이다. 당현마을과 체육공원 간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내장 천변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한다. 수성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신대인 행정문화센터를 신축한다.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고 연동동 공공실버주택을 준공해 시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역의 전통주를 활용한 주향(酒香) 특화 거리 조성과 단계별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나선다.

유 시장은 “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며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면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

고창군이 농업인의 편의 증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고창군은 대신면 일원에 남부권(무장·공음·성송·대산) 농기계임대사업소(사진) 준공식을 열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6461㎡, 건축 면적 957.65㎡의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했다. 이 공간에는 총 37종 150대의 임대 농기계가 비치됐다.

농민들은 수요가 많은 경운기와 굴삭기, 관리기 등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 하반기 북부권(흥덕·성내·신림·부안) 사업소까지 건립해 농기계 임대·운송서비스를 권역별(4개소)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농기계 임대 및 운송서비스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영농시간 단축 등 필요한 농기계를 언제든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농기계 임대



실적은 2018년 5883건에서, 2019년 6925건, 지난해 7784건으로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다.

현행열 고창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영농 현장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지리산허브밸리 4월부터 무궤도열차 운행...놀이시설도 조성

탑승정원 20명...1km 구간 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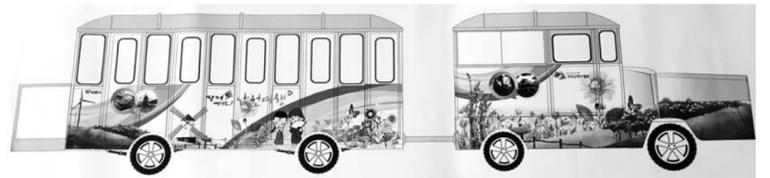
오는 4월부터 남원 지리산허브밸리에 무궤도열차(평면도)가 운행된다.

남원시는 지리산 허브밸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 3억5000만원을 들여 무궤도열차를 도입,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무궤도열차는 화물차가 승객 탑승용 객차를 이끄는 형태의 차량이다. 객차 1량에 탑승 정원은 20명이며 지리산허브밸리 1km 구간을 순회하게 된다.

지리산 허브밸리의 꽃과 자연을 감상하며 전망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24억원을 들여 지리산허브



밸리에 집라인(Zipline, 줄을 타고 하강하는 레포츠 시설)이 포함된 복합놀이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내 개장할 방침이다.

지리산허브밸리는 200여억원이 투입돼 남원 운봉읍 일대 22만㎡ 부지에 조성됐으며 허브체험농장, 허브사인스센터, 자생식물환경공원 등을 갖

쳤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꽃과 자연이 어우러진 지리산허브밸리에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춰 종합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군산시 부동산 투기 불법 거래 특별조사 착수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 운영

군산시가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과 관련해 불법이 의심되는 신고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군산시는 “아파트 투기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으며,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적기에 처리할 합동조사반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반은 부동산거래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에 협조 요청을 의뢰해 꾸려졌으며, 행정·사법·국세 합동으로

운영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중개인 최고단계 행정처분 ▲매도·매수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의뢰 ▲세무서 즉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준희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벌로 투기 세력을 엄단할 방침”이라며 “특히 신규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속칭 ‘뺏다방’ 등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계획을 수립해 투기 불안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순창청소년수련관서

가상현실 스포츠 즐기세요

다목적실에 VR 스포츠실 설치

순창군은 읍내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에 가상현실(VR) 스포츠실을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순창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한 ‘2020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시설을 마련했다. (사진)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실내에 스크린과 장비를 설치해 가상현실 속에서 운동과 공놀이 등을 즐기는 공간이다.



이 곳에는 260개의 가상현실 콘텐츠를 갖췄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체육 및 야외활동이 제약된 상황에서 청소년들

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배울 수 있는 실내공간이 생겼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작 1작 1작 名명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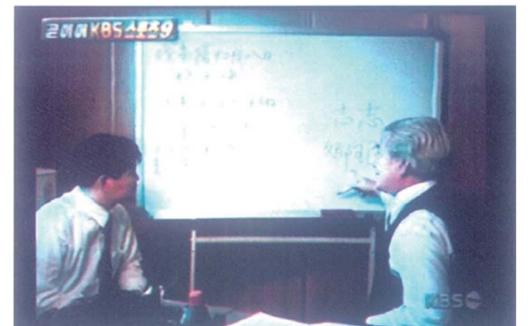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 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외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